선의 등불 살린 경허생애 바로보기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일지 스님 지음

투철한 수행과 깨달음으로 꺼져 가는 선(禪)의 등불을 밝히고, 비승비속의 모습으로 북방고원에서 행각하다 입적한 경허(1846~1912) 스님의 존재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근대 한국불교사의 큰 화두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허 스님의 발자취와 선의 세계를 조명한 경허 평전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민족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경허의 신화와 진실에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임제록〉 등 여러 선서를 내놓으면서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탄탄한 언어를 구축한 글쓴이 일지 스님은, '경허 선'을 큰 축으로 경허 스님이 걸었던 학문과 구도의 삶 그리고 깨침의 세계를 탐구한다. 글쓴이는 들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야심찬 집필의 변을 밝힌다. "경허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사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프로메테우스다. 이제 우리는 왜 그가 스스로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의 방랑자로서 쓸쓸히 사라져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호하고자 한다."

구한말 조선의 피폐된 한국불교의 선 수행과 정신을 되살려내고 선불교의 근대적 기원을 이룩한 경허 스님을 우리의 기억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평전류들과는 달리 기존의 자료를 나열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밀도있는 분석을 가하며 경허 스님의 선 세계를 오늘에 되살려내고 있다.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허 읽기'는 소문으로 전해져 오던 경허 스님의 생애와 깨달음을 사실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감동은 소설이 주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20대에 이미 뛰어난 학승으로 이름을 떨친 경허 스님이 환속한 스승 계허 스님을 만나러 가던 중, 천안 근처에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문자 속에 진리가 있지 않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 필

머문 사찰·교유 인물 만나
학문·구도·깨침의 삶 탐구

사적인 수행을 통해 선승으로 거듭나는 과정, 선 불교를 중흥시켜 많은 제자를 길러낸 후 홀연히 저잣거리로 들어가 중생 교화에 전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적고 있는 부분이 특히 그렇다.

이 책은 경허 스님의 여러 출생설에 대해 논한 '고해의 연대기'를 비롯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연대순으로 따라간다. 경허 스님에 관한 자료와 사진 그리고 스님이 머물렀던 사찰과

선원을 답사하고 쓴 취재수첩인 셈이다. 경허 시대의 대표적 재가수행자 박태평 거사, 경허의 선을 사숙하고 그의 유품을 보관하던 일본인 중촌건태랑이 쓴 편지, 월초화상의 깊은 교류에 얽힌 일화 등 자잘한 기록들도 풍성하다. 이 책은 경허의 선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경허의 마음이다. 글쓴이가 이 평전을 쓰기 위해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로 나눠 '경허, 그는 누구인가'를 깊이있게 탐구한 것도 그 이유다.

표면적인 사실이나 소문 등에 대한 시비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진실을 읽어내지 못하고 명분론으로 만족하는 경허 연구자들에게 있어 이 책은, 반성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대승기신론(각성 스님 번역, 현음사)= 마명보살이 대승불법을 선양하기 위해 지은 〈대승요의경〉 1백여 부를 망라해 저술한 〈대승기신론〉 해설서. '대승기신론이란 무엇인가'를 비롯 대승의 개념부터 인연분·입의분·수행신심분 등 모두 5분으로 나뉘어 있다. 해인사, 통도사 등의 불교전문강원 강주로 여러 경론과 어록을 가르쳐 온 각성 스님이 번역한 이 책은, 명징한 해설이 덧붙여져 〈대승시신론〉의 참뜻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값 4만5천원.

▲선(禪) 삶의 요리법(버나드 글라스먼·릭 필즈 공저, 박문희 옮김, 불일)= 이 책은 삶을 최고의 음식에 비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이 책은, 글쓴이의 공양주 소임 경험, 즉 '공양주 원칙'을 토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면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한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선(禪)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값 7천5백원.

▲중국 조선족의 아리랑(진용선 지음, 수문)= 정선아리랑 학교를 여는 등 국내 및 해외의 아리랑을 찾아다니는 진용선(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씨가 쓴 중국 아리랑 완결판. 중국 조선족의 이주 역사에서부터 아리랑의 시대구분, 아리랑의 갈래, 아리랑 고개, 아리랑의 창법과 장단, 여러 예술 장르로 나타난 아리랑 등을 통해 조선족에게 아리랑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값 9천원.

▲아름다운 세상(글·조평규, 그림·권대웅, 하나두나)=어린이 불자들의 슬기를 일깨워주는 불교 동시집. '늙지 않는 부처님' 등 이 책에 수록된 108편의 동시들은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의 소재를 삼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새싹불자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동시를 통하여 부처님 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다. 비매품.

▲지나간 세월(진관 스님 지음, 장승)=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 스님의 시집.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 불교·통일운동가로현장에서 겪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절규가 녹아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사형수들을 위하여 쓴 '3월을 머리에 이고' 등 118편을 통해 스님은 민족의식의 상실, 자연의 황폐화, 무질서, 이기주의, 허위의식 등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값 6천원.

노인복지포교 나침반

'원력있는 곳에 가피…'

"종교에서 말하는 어짊과 사랑 그리고 자비는 인류 보편적 생명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의 본질도 사랑과 존경의 생명존중이 시발점이며 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의 사회화 운동'과 '노인 모시는 사회구현'을 주장하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각현 스님이 노인복지 현장 경험을 담은 수상집 〈원력이 있는 곳에 가피가 따른다〉(연꽃마을)를 내놓았다.

'천 원의 위력', '복 짓는 사람들', '사람답게 사는 길' 등 모두 3부로 나뉘어 있는 이 책은,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노인 모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꽃마을의 노력,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등이 실려 있어 노인복지포교의 지침서로도 삼을 만하다.

한편 각현 스님은 불교 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책 2천권을 노인복지를 원하는 스님 등에게 무상으로 보시하고 있다. (02-2203-3677).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1500년전 낙양선 무슨일들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불교가 번성했던 중국 북위의 수도 낙양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신간 〈낙양가람기〉(양현지 지음, 서윤희 옮김, 눌와)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낙양의 사찰들을 둘러보고 쓴 기행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낙양의 사찰에 관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사찰을 통해서 북위 역사 저변에 깔린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서라 할 수 있다.

낙양가람기
양현지 지음

불교적 시각에서 볼 때 당시 낙양은 불교교류와 경전연구의 중심지였다. 북위는 육로를 통해 서역 스님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었다. 선무제는 외국 스님들을 위해 영명사를 건립했는데, 3천 여명이 찾아왔다고 한다.

또한 보리사, 법운사 등이 서역의 스님들에 의해 세워지는 등 당시 낙양에는 1,367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보리류지가 20여 년 동안 39부 127권의 경전을 번역할 정도로 많은 경론들이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과 경전연구는 중국불교가 인도 불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낙양에서 40년 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이 책은, 모두 5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행은 낙양성 안쪽에서 시작해 성동, 성남, 성서, 성북으로 이어진다. 각 부문은 지역의 대표적인 절의 명칭, 세운 사람, 위치, 부근의 건물과 풍경, 절에 대한 설명, 그 절과 관련된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 설화 등의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성북편 '문의리'에는 송운과 혜생의 〈서역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당시의 서역 가는 길과 서역의 풍습, 부처님이 남긴 유적과 그에 얽힌 사연들도 알 수 있게 해준다.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이르는 북위 불교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낙양가람기〉는 〈제민요술〉, 〈수경주〉와 함께 북위시대 3대 명저로 꼽히고 있는 책으로 우리말로 처음 번역됐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문자 초월한 혜능선 조명

조사선
김진무 옮김

조사선(祖師禪)은 여래선(如來禪)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종의 가장 높은 경지로 여겨지던 선화사상체계다. 넓은 의미에서 여래선은 여래(부처님)가 전한 선과 경전에서 전한 선을 가리키고, 조사선은 선종의 모든 조사들이 전한 선을 가리킨다. 즉 인도불교의 선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을 여래선, 중국화된 선을 조사선이라 한다.

그렇다면 여래선과 조사선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 도서출판 운주사가 선학총서 다섯 번째 권으로 출간된 〈조사선〉(김진무 옮김)은 그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한다. 그 첫째가 여래선이 점수적인데 비해 조사선은 돈오적이라는 것이다. 여래선은 언설과 화리, 사변을 중요시하지만, 조사선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심성론, 수행의 측면, 생활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설명한다.

조사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책은 혜능의 선법을 바탕으로 조사선의 개념부터 발전과정, 여래선과의 차이, 조사선의 형성과 수행론 등에 대하여 깊이있게 조명한다. 또 글쓴이 동췬(중국 동남대학) 교수는 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 등 혜능 이전 조사들 선법의 핵심내용, 홍인으로부터 신수를 통해 분화된 신수의 여래선법의 특징, 혜능 조사선의 성립과정 등도 고찰한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2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은 날
3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상섭	컬처라인
4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5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공양
7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8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지수	불 광
9	무심-나는 진아다	대 성	탐구사
10	참회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영험담모음집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02)586-9078